

共同體의 成立條件에 관한 理論的 考察

김 홍 석*

Theoretical Study on the Conditions of Community

Hong-Suk KIM

〈 目 次 〉

1. 서론
 2. 공동체의 이론적 시각
 3. 공동체의 유형과 특성
 4. 공동체의 성립조건과 한계성
 5.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인류사회가 존재한 이래로 각양각색의 가치관과 사상이 존재해 왔다. 가치관과 사상은 인간의 행위규범이나 윤리의식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데올로기나 시대정신(Zeit Geist)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¹⁾ 대개 한 사회에서 주도적인(지배적인) 가치관은 그 시대의 공동체 이념이나 공동체의 구성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 모두 나름대로의 공동체 형태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개별사회의 가치관은 그 사회가 지속되는 시간과 공간적인 차원의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시대정신은 사회문화적인 상황과 조건의 의미(documentary meanings)가 반영되어 나타난다.

시대정신은 시간적인 길이를 길게 잡아 볼 수도 있고 짧게 설정할 수도 있다. 시대정신(Zeitgeist)은 한 사회의 존립근거와 지도이념으로 볼 수 있다. 시대정신이란 개념의 일반적인 의미는 헤겔의

* 한국해양대학교 여성학 강사(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1) 원시 부족사회로 부터 현대의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사회구성체라 하여도 무방함)는 각각 시대상황에 걸맞는 문화나 가치체계를 갖고 있다.

시대정신은 시간적인 길이를 길게 잡아 볼 수도 있고 짧게 설정할 수도 있다. 시대정신(Zeitgeist)은 한 사회의 존립근거와 지도이념으로 볼 수 있다. 시대정신이란 개념의 일반적인 의미는 헤겔의 세계정신이라는 표현을 빌어 칼 만하임이 사회학적인 의미를 붙인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지칭하는 것이다(Mannheim, 1952). 시대정신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의하였거나 자발적인 내면화를 거치지 않았을지라도 사회적으로 수용되거나 확산된 신념체계나 행위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정신은 한 사회의 지속과 발전을 가능하는 척도로서 사회변동의 방향과 성격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사회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던 시대정신을 거부할 때 사회변혁이나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²⁾

1987년 동구세계의 붕괴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체제 간에 있었던 긴장구조가 와해 됨으로써 많은 지적, 사상사적 혼란을 가져왔다. 이러한 일련의 세계사적 변화는 후기산업사회 내지 정보화의 진전으로 가속화 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가치관의 설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은 항상 새로운 행위양식과 가치관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회질서관을 추측하기 위한 시도를 시대적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18세기 이래 지속된 이성의 시대에 대한 반작용이다. 그동안 근대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 군림하였던 노동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중시경향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³⁾ 산업혁명 이래 신성시되어 오던 자본과 노동의 가치가 점차 퇴색되고 계층간의 갈등과 소외(alienation), 생활세계 전반의 상품화 문제, 환경의 오염,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현대문명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려는 시점에서 근본적인 인식론적인 회의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회의는 서구중심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실증주의적 질서관이 빚어낸 물질 문명에 대한 반성을 통해 21세기의 인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다. 히피족의 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반사회적이고 반문명적인 경향은 해체주의적 사조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데올로기의 종언과 세계질서의 다원화, 산업공동체적 주도이념의 상실, 종교적 형이상학적 초월세계에 대한 신념의 붕괴, 무한정한 세계화(Endlessness of Globalization), 시간과 공간의 귀속성 탈피 등에 의해 자극받고 있다(Giddens, 1990 : 20-46).⁴⁾ 우리사회에서도 이러한 세계사적인 대변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탈이데올로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세계관과 사회질서관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학문과 예술분야에서는 물론이고 정치경제 등 사회전반의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공동체를 찾으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3) 나아가 경험주의(empiricism)의 아류인 실증주의적 과학지식(scientific knowledge in positivism)과 서구중심의 단선적인 진보(진화)사상, 개발중심의 자연관, 기계주의적 사고 등에 대한 회의와 반성도 제기되고 있다 (Benton, 1983).

4) 이제 세계는 19세기말에 풍미했던 엄세적 비관주의(Pessimistic Nihilism)와 반주지주의(Anti-intellectualism), 반 이성주의적인 경향(Anti-Reasonalism) 등이 부활되고 있으며 상실된 인간주체성(the subject of human beings)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글의 의도는 여러가지 다양한 사회형태들 중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이상을 추출해 보는데 있다. 따라서 가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공동체의 유형과 이상형인 인류공동체의 성격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들 사이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유형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들 공동체의 근본적인 가정(fundamental presupposition)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⁵⁾

본고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기존의 공동체 이론의 한계를 논의해보고 새로운 공동체관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공동체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면서 공동체의 성립조건과 한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경향과 현상을 공동체 개념 속에 어떻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포스트모더니즘의 제 경향이나 개념의 다의성 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이 공동체의 이론적인 논의와 공동체개념의 확대적용에 있기 때문에 단지 포스트모더니즘 하에서도 공동체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시론적 수준에 국한하려 한다.

2. 공동체의 이론적 시각

유사 이래 인간 사회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진 공동체를 지향하여 왔다. 학문의 세계가 진리를 이상으로 추구한다면 인간사회는 어떤 형태이든 사회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Rawls, 1988 : 25-6)⁶⁾. 학문의 세계에서는 기왕의 진리가 위협을 받거나 정당성을 상실할 때 패러다임의 변환(paradigm shift)이 일어난다. 토마스 쿤이 말하는 과학의 혁명으로서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다.⁷⁾ 그러나 인간의 공동체에서는 기존의 사회정의관이나 사회질서관(social order)은 인간의 행위양식을 규율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혁명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인간행위양식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신념의 변화이며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⁸⁾ 인간의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의 변화는 사회변동의 결과이면서도 동시에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모든 사회변화와 사회변동(social change)은 사회구성원에게 많은 희생과

5) 인간관과 사회질서관은 알렉산더의 분류에 따라 인간행위의 두가지 차원(합리적인 측면과 비합리적인 측면)과 사회질서에 관한 두가지 시각(개인주의적 질서와 집합주의적 질서관)을 의미한다. (Alexander, 1989).

6) John Rawls는 현대의 유명한 사회철학교수로 주로 사회정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상체계의 제1덕목은 진리이고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라고 한다. 인간사회에서 법이나 제도는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사회란 성원 상호간에 구속력을 갖는 행동규칙을 지닌 '자족적 공동체'이며 사회는 이러한 상호협동의 결사체이므로 이익이 상호대립하는 특징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한다(Rawls, 1988 : 26-27).

7) Thomas Kuhn(1962)에 따르면 패러다임이란 과학자집단을 조직하며 실무자집단에게 일정기간 동안 모델과 모델에 대해 해답을 제공해 주는 보편적이며 안정된 과학적인 업적이다.

8) 패러다임은 범례나 모형, 주형, 패턴 이상의 의미, 즉 신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과학자집단간에 상호인정하는 신념체계가 없다면 대외적인 상호교류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점에서 볼 때 인간의 행위양식의 변화는 신념과 가치체계의 변화없이는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인 비용(social costs)을 강요하게 된다. 인간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것은 사회적 비용으로 나타난다. 새로운 사회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수준(하위집단)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할 경우엔 시대를 앞서 나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후진사회를 면치 못하고 낙오하게 된다.⁹⁾

한 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세계관이나 사회정의관, 사회질서관, 규범적인 행위양식 등이 바뀌는 것이 사회변동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변동은 바로 새로운 공동체를 추구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바람직한 사회발전은 누가 사회적인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고 어떻게 비용을 (경제적으로) 최소화하는가 하는 방식을 찾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그렇다면 인간사회에서 상대적이지만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최선 혹은 차선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인류가 오랫동안 갈망해 오던 세속적 수준에서의 이상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오늘날 세계는 이러한 공동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사적인 대변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오늘날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일반적으로 공동체(Commune)란 혈연공동체나 지연공동체 등 소규모 집단의 연대의식(social solidarity)에 의한 동질적인 생활(운명)공동체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즉 다분히 중세적이고 봉건제적 질서관으로 정태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본질적인 사회집단의 유형을 의미하고 있다(Simmel, 1900).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사회학, 인류학, 경제사학이나 역사학 등의 각 학문 분야에서 여러 이론가들에 따라 다분히 자의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왔다(한상복, 1980).

전통적인 의미에서 공동체사상이나 개념은 대개 지역공동체와 산업공동체로만 사용되어져 왔다. 서구에서는 18세기 이래로 새로운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시대정신은 자유주의(Liberalism), 보수주의(Conservatism), 급진주의(Radicalism), 사회주의(Socialism) 등 다양한 개념으로 나타나 상이한 이론적인 지향을 가진 공동체사상을 발달시켜 왔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산업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중세의 목가적 인간생활의 공동체가 해체(공동체 상실)됨에 따라 시작되었다.¹¹⁾

9) 인간공동체란 무엇이며 사회정의란 무엇인가란 질문은 어떠한 사회질서가 가장 정당한 것이며, 이러한 사회질서를 위해 사회구성원들은 어떤 행위양식을 가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10) 사회학이란 社會的 行爲를 해석적으로 이해하고 행위를 인과적인 과정과 결과로 설명하는 과학이다 (Weber, 1968 : 4). A. Comte가 사회학(Sociology)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사회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각기 상이한 정의를 내려왔다. 사회학은 사회적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Hobbes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했다(Turner, 1977 : 18). 이 글은 21세기를 목전에 두고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사회상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고 변화시켜야 되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했음을 밝혀둔다.

11) 18세기말에서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서구사회는 산업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생긴 인간성의 상실과 사회관계 유형의 변화, 즉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의 변화, 신분사회에서 계약사회, 신성사회에서 세속사회로의 변화라는 역사적 맥락속에서 사회적 사실로서 공동체와 공동체意識의 상실이 지속적으로 나타

실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공동체의 상실은 기존의 규범과 법률 및 제도를 바꾸어 놓았다.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출은 기존의 사회적 강제력이 무력해지는 것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사회해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질서의 추구는 한편으로는 낭만주의적이고 복고주의적인 중세적 공동체의 추구로 나타났고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적 이상주의가 사회주의적 이념을 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그러나 이들의 공동체사상 외에도 전통적 공동체이념과는 상이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추구 하는 공동체 이념이 등장하였다. 산업사회라는 현실세계의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적극 수용하고 다분히 현실주의적 공동체 원리를 제시한 입장이 있었다. 이것은 드르켄(E. Durkheim)이나 콩트(A. Comte), 베버(Max Weber)와 같은 산업사회론자의 공동체이론을 말한다.

새롭게 전개되는 자본주의 사회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현실주의적 공동체론과 이를 개혁하려는 진보주의적 공동체이론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사회관 중에서 전자는 현실주의적 산업공동체 이론으로 후자는 이상주의적 사회주의 공동체 이론으로 발전되어 왔다.¹³⁾ 그러나 전통적인 공동체 이론의 개발은 퇴니스(F. Tönnies)의 「공동사회와 이익사회(Gesellschaft und Gemeinschaft)」의 출간 이후라고 여겨진다. 퇴니스에게서 공동체는 본질적의지에 의해 결합된 운명공동체를 의미한다. 쿨리(C. H. Cooley)의 설명에 따르면 1차적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체는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인간의 접촉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니스의 공동체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장이 소규모 지역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촌락공동체나 지역공동체를 의미하기에 이르렀다.¹⁴⁾

실제 전통적인 의미의 공동체 개념은 바로 전통적인 공동체의 양상을 포착키 위한 개념들이나 이념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의미에서 공동체 개념은 전통적 공동체의 의미와는 달리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여러 형태의 사회적 유형을 포괄하기 위해선 다양한 차원의 공동체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마르크스(Marx)적 이상주의나 생시몽(Saint-Simon)이나 콩트(Comte), 오웬(Owen) 등이 말하는 공상주의적 공동체는 더 이상 설득력을 잃은 구호에 불과하다. 또한 퇴니스(Tönnies)나 힐러리(Hillery)류의 공동체 개념도 그 용어의 유한성과 현실 적합성에 있어서 폐쇄성 때문에 현실적 유용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 개념은 기존의 지역공동체와 산업공동체 개념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개념은 이제 니스벳(Nisbet)이 말하는 다의적이고 광의의 공동체 개념과 하버마스(Habermas)가 언급하는 후기산업사회 (혹은 탈산업사회)의 의사소통망과 정당성을 포괄하는 새로

나게 되었다.

- 12) 실제 사회주의적 지적전통은 J.J. Rousseau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푸르등과 오웬, 필머, 생시몽 등으로 계승되기 때문에 산업사회론자 보다 앞선 공동체 이념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 13) 물론 이러한 제 사회이론을 모두 공동체이론이라는 논리로 통일을 기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김성국(1987)의 논의처럼 Mayo와 Gramsci, E. Durkheim, Marx 등과 같은 이론가의 새로운 사회관은 바로 산업사회의 새로운 질서관, 즉 산업공동체이론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 14) 오늘날에도 공동체는 지역공동체를 의미하는 커뮤니티란 개념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개념은 공동체라는 사회학적 대주제를 지역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과 같은 개별분과 학문으로 국한시키는 우를 범하고 공동체론의 논의를 보다 낮은 개념수준으로 제한시키고 말았다.

운개념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과거의 이념틀에 매달려 현실 포착능력이 미흡한 개념구사를 하여야 직성이 풀린단 말인가? 이제 공동체의 19세기적 동굴은 빛을 잃어가고 있다. 새롭고 적실성 있는 사회학적인 공동체의 재발견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공동체란 개념은 인간이 상호영향을 주는 범주안에 있는 사회적인 집합체나 사회적 단위라고 한다.¹⁵⁾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회’(society)와 ‘공동체’(community)를 동일한 수준에서 사용하고자 한다.¹⁶⁾ 이러한 취지에서 현실 포착능력이 있는 개념틀로서 공동체란 용어를 재정의 한다면 산업사회나 전후의 모든 사회형태, 혹은 사회구성체의 질서의식과 행위양식, 사회관계등을 포괄하는 인간의 상호의존적 생활망을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상에서 근대 이후 출현한 각종의 사회사상과 이론사를 통해 인간이 추구해 온 공동체에 관한 시각들을 정리해 보았다. 나아가 새로운 공동체의 이념과 개념이 왜 필요한가를 규명해 보고자 했다. 다음은 우선 공동체의 의미와 유형을 먼저 정리한 후 공동체 성립조건이 무엇이며 인간의 이상인 공동체의 지향점과 한계,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보장과 공동체의 유지조건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공동체의 유형과 특성

인간이 추구하는 공동체는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이상적인 사회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니스벳의 지적처럼 20세기의 사회학적인 대주제는 공동체의 추구이며 공동체연구는 바람직한 사회상에 대한 해명작업이라고 할 것이다.¹⁷⁾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체를 해석할 때 종래에 있어 왔던 공동체 논의에 대한 사회학적 편협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학이란 분과학문에서만 다루어온 지역공동체(communitiy)개념을 초월해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형태들을 다룰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 같은 입장에서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시각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학자들은 흔히 공동체란 의미를 세가지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우선 가족이나 종교조직체와 같은 동일한 소속집단의 구성원들을 의미(동질성을 가진 소집단)하는 경우가 있다. 두

15) 공동체 개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Poplin과 Nisbet의 앞의 글을 보라. 본 주제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Poplin : 1985 : 18-51).

16) Jessie Bernard(1984 : 15-20)는 지역공동체(communitiy)란 지역사회라는 개념과 공동체라는 순수한 의미가 동시에 있는데 전자는 자연이 기본요소가 되는 정착형태와 관련된 개념이고 후자는 공동의 유대와 상호작용이 강조된 개념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17) Robert Nisbet은 그의 저서 ‘공동체의 추구(The Quest for Community)’에서 전통적인 공동체가 붕괴된 지금도 현대인들은 아무 성과도 없는 공동체를 계속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953 : 11-12).

번째로는 인간의 심정적 정신적인 현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중사회와 대조적인 협동적 관계)이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역적 조직체 단위를 가리키는 것, 즉 근린(Neighborhood)과 같은 지역공동체로도 사용된다(Poplin, 1979).¹⁸⁾ 일반적으로 공동체는 힐러리(George A. Hillery)의 지적처럼 지역적인 범주(지리적인 범주)와 심리적인 귀속감(공동의 유대), 그리고 성원간의 상호작용(사회적인 상호작용)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공동체는 '인간들이 일정한 지역적인 범주내에 거주하면서 가지는 사회적인 협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기존의 공동체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집단론적인 시각에서는 가족이나 친족, 회사, 정치적인 결사체 등을 공동체라 정의하고 있다. 사회조직이나 체계론적인 차원에서 공동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회집단의 조직과 체계를 공동체라 여긴다. 상호작용론적인 시각에서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호작용의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 공동체를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심리학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인간의 공동적인 유대나 집합의식을 중시하고 사회유형론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엔 사회성원의 가치와 행위양식을 공동체의 주요 특성으로 다룬다. 끝으로 생태론적 차원에서 공동체를 이해하려는 자들은 공동체의 환경과 거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를 공동체의 전형으로 여기는 등 다양한 시각이 혼재하고 있다. 이와같이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시각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다르며 나아가 개념 또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공동체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은 콩트의 지적처럼 '가족'이다. 가족은 공동체의 소속감이나 결속력면에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이며 구성원 상호간에 영향력이 가장 큰 사회집단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범위가 가장 작은 집단이란 특징도 갖고 있다. 이와 정반대로 구성원간의 소속감이나 결속력이 가장 떨어지고, 공동체의 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모습의 공동체는 아마 인류공동체일 것이다. 인류공동체가 어떻게 사회학적인 주제인 공동체 논의에 포섭되는 개념인가에 대해선 논자들이 따라서 다를 수 있다.¹⁹⁾

인간관은 공동체 구성에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마르크스와 같이 이상주의적인 인간관에 기초할 때 사회주의 공동체를 구상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관은 인간이 전적으로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제조건(특히 사유재산제도의 철폐)이 개선된다면 천사들이 모여있는 공동사회인 '공산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출발한다. 마르크스류의 공산사회관은 결국 인간의 비합리적 측면인 도덕적인 공동체에 기초한 것이다.²⁰⁾ 그러나 인간사회에서 도덕적 공동체가

18) 데이빗 마이자와 스코트 그리어 등은 공장, 노동조합, 회사, 직업집단 등을 공동체로 들고 있으며 감옥공동체, 군사공동체, 종교공동체, 학술공동체 등등 다양한 사회현상을 공동체라 부르고 있다(Poplin, 1985 : 18-51).

19) 인류의 이상이나 공동체의 궁극적인 이상은 아마 인류공동체의 실현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핵무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다면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 이같이 공동체의 테두리내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볼 때 인류공동체는 여러가지 다른 변수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성립가능하다. 모든 공동체의 완전한 이상이 실현되려면 가장 큰 범위에서 공동사회가 성립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인류공동체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20) 물론 도덕적인 공동체관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로보트 오우웬은 '근면하고 절제적이며 비교적 도덕적인 사람이 무지하고 태만하며 약한 사람을 지원해 주어진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실업수당을 반대하

구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된 소규모집단의 공동체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도덕적 공동체는 가족이나 친구집단, 친족집단 등과 같은 소규모 공동체이거나 종교공동체들 처럼 인간관계의 특수한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집단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실제로 아무리 작은 규모의 집단일지라도 총체적인 사회관계 속에서는 이상주의적 공동체를 실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디까지나 이기적인 동물이며 자신의 이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행위만을 선택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공리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경제사상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관은 자본주의 사회를 이끄는 자유주의 공동체이론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²¹⁾

공동체를 구성하는 또다른 요소는 사회관계와 구조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며 이러한 시각차이는 다양한 공동체를 가정하도록 해 준다. 왜냐하면 사회질서에 따라 인간관이나 행위양식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회질서관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원리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바탕을 두고 공동체의 질서를 추구하는 개인주의와 개인의 의지보다는 사회전체나 집단적인 강제(social coercion)에 의해 공동체의 질서를 추구하는 집단주의적 공동체관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개인의 자율성(혹은 자유의지)을 강조하는 경우에 공동체의 결속력은 약화되고 전체의 질서를 강조할 경우엔 공동체의 이상이나 목표가 실현되기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전체의 질서를 강조하는 공동체관이나 개인의 자율성만을 추구하는 공동체관은 모두 그 이상을 실현시키기 어려운 편협된 시각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이 바로 공동체의 영원한 딜레마인 자유와 질서 사이의 긴장에 관한 문제, 즉 인간사회의 자유성과 필연성의 문제인 것이다.

이상의 행위와 질서관을 기초로 성립된 공동체관을 보면 우선 순수비합리적 공동체인 도덕적 공동체(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관)와 합리적 도구적 공동체(자본주의 사회관), 그리고 개인주의적 공동체와 집합주의적 공동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덕적 공동체와 도구적 공동체는 공동체의 결속력과 자율성의 크기에 따른 분류이고,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적인 공동체의 분류는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몰입정도나 결속력을 기초로 한 분류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유형과 제차원을 연관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었는데 이러한 사상은 바로 개인주의적인 도덕관 내지 공동체관이라고 볼 수 있다(Ebenstein, 1982 : 272-273).

21) Raymond Boudon(1979 : 55-56)에 따르면 사회학에서 행위에 대한 논의는 베베나 짐멜과 같은 독일 고전 사회학 전통이나 파레토나 모스카 등의 이탈리아의 고전적 전통 그리고 파슨즈와 머어튼과 같은 미국의 주요사회학 전통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페러다임의 중요성과 보편성을 사회학적인 이론으로 정리한 사람은 베버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행위이론은 오늘날 모든 사회과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의 하나이며 그 전통을 멀리 아담 스미스와 같은 고전 자유주의 경제학자들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른다면 행위에 대한 제차원을 규명하는 일은 사회학의 대 주제이기도 하다.

그림 1) 공동체의 범위와 특성

차원 \ 종류	가족 → 친족 → 지역 → 시민사회 → 국가 → 민족 → 인류						
	자율성	1	2	3	4	5	6
구속력 (질서의 강도)	7	6	5	4	3	2	1
범위 (크기)	1	2	3	4	5	6	7
지속성	7	6	5	4	3	2	1

(1:매우작음, 4:보통, 7:매우 큼)

공동체의 범위와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에서, 친족, 지역, 시민사회, 국가, 민족, 인류공동체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들 공동체의 속성은 자율성과 공동체의 구속력, 범위, 지속성 등의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공동체이거나 시민공동체사회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시민공동체의 성립조건과 한계성에 대해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4. 공동체의 성립조건과 한계성

공동체의 성립조건은 대체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이상과 규칙이 있어야 하며 성원들간의 합법적인 상호작용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와 같은 국제사회에서는 인류공동체란 제대로 성립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도처에 아직도 전쟁의 위협과 국가간, 민족간, 지역간, 체제간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존재하며, 기존 국제질서나 규약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당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규율할 어떤 규제장치나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국제사회에는 기존의 세계 질서를 깨뜨릴 요소가 도처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에서부터 친족공동체, 지역공동체, 각종의 시민공동체, 국가공동체, 민족공동체, 인류공동체등이 성립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있을 것이다.

공동체의 성립조건은 한 사회의 성립조건과 같은 것이다. 한 사회가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정과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고 사회적인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사회구성원들을 사회적인 힘으로 통제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즉 사회가 개인이나 그 사회의 부분집단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도구나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에게는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럴때 만이 사회적인 강제나 의무의 이행은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공동체의 성립조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바탕을 둔 상호규제적인 힘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힘을 정당화시키고 지속적인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이상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이상은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미래의 목표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셋째로 공동체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존재해야 한다.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거나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은 물질적인 자원일 수도 있고 비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상이 공동체의 내부적인 요인이라 한다면 네번째의 요소는 외부적인 조건이다. 외부적인 조건은 공동체 외부의 침입이나 간섭으로부터 공동체의 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끝으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선 지역범위나 사회적인 범주에서 범위가 작은 하위공동체가 상위공동체의 질서나 이상을 파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동체가 성립된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전체적 공산주의 사회나 봉건적인 신분사회와 같은 공동체는 물론이고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체제 등은 대표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공동체사회이다. 이러한 공동체가 대두되는 배경은 아마 인간의 공동체 지향에 대해 갖고 있는 숙명적인 성격 내지 필요성, 혹은 욕구나 갈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로버스 니스벳이 '공동체와 파워'(1962)와 '사회적인 전통'(1966)에서 잘 지적했듯이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한 강조와 자원론(주의주의)적인 성격때문에 인간은 공동체에 대한 끝없는 몰입이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전통에 대한 감정과 사상의 혼재이며 사회적인 성원의식과 귀속의지에 대한 동조가 있을 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Nisbet, 1953:190).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공동체(혹은 사회)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이다. 프롬(Erich Fromm)에 따르면 인간은 개체발생학적으로나 종족발생학적으로, 타고 날때 부터 소극적이고 자연에 대해 본능적으로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다. 인간은 환경적응력과 힘이 가장 부족하여 개체적응이 무력한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공동체에 귀속하고자 한다(Fromm, 1986 : 32-35).

인간이 집단생활을 통해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프롬은 인간이 갖는 관계욕구 때문이라고 한다.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듯이 세계에 대한 복종과 지배의 욕구를 가지는데 이것은 인간의 인간관계와 공생, 관련성의 욕구 때문이다. 이러한 관련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자신을 세계와 단합시키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통합의 욕구와 개체성의 관념(인간의 유일한 열정인 '사랑')을 가지려 한다고 주장하였다(Fromm, 1986 : 40-43).

그러나 이러한 인간욕구의 결과로 공동체의 추구는 자칫 그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고 '리바이턴'과 같은 괴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모든 인간사회에서 존재한다. 공동체 본래의 이상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공동체의 한계성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의 또 다른 한계는 개인의 자율성과 전체의 사회질서 유지라는 상호대립되는 목표와 기능의 조합과정속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공동체 차원의 질서와 개인과 사회부분집단 차원(하위 공동체)의 자율성이 갖는 상호모순적인 역학관계로 인해서 인간사회는 영원히 하나의 틀을 거부하게 되고 끊임없는 변동을 겪게 된다. 이러한 자생적 사회변동은 부단히 새로운 사회상을 모색하고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 욕구이기도 하다. 즉 이같은 공동체의 내적긴장은 사회변동의 원인이나 동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이상과 현실간의 긴장과 공동체의 범위와 특성간에 놓여있는 밀접한 상호관련성과 중첩성으로 인해서 공동체논의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현대사회의 생활세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측면의 변화와 개인주의와 관료제화의 영향 등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 소외현상 등의 사회문제극을 복하려는 사회운동과 같은 노력을 새로운 공동체의 추구로 본다면 공동체의 논의는 지금보다도 훨씬 광범위해질 것이다.

이미 앞절에서 언급한 대로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 개념이나 사상은 전통적 의미보다는 훨씬 포괄적이고 탄력성있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행위의 원리와 질서관을 기초로하여 성립된 결속력 있는 모든 사회와 사회적 관계망을 공동체(Commune)라고 정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해석하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포착하여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는 일은 바로 새로운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오늘날 모든 사회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혁명의 진전으로 나타난 생활양식의 다원화와 종교의 신성한 힘의 상실, 실증주의의 퇴조, 서구중심적 사고의 몰락 등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경향의 대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바로 21세기의 사회를 예고하는 전주곡이라 할 수 있다.²²⁾

기존의 인간주의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주체성 회복에 대한 문제, 즉 휴머니즘의 딜레마는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주체화 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서구의 자연주의적(기계주의 혹은 사실주의) 인간관에 바탕을 둔 인간주의는 오히려 인간의 주체성을 더욱 궁핍화시켜 버렸다. 이 결과 20C초부터 반실증주의 운동과 실존주의 철학, 해석학적 방법 등이

22)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하나의 문화양식이자 추세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보다는 남미등 제3세계에서 건축양식과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진행된 하나의 시대정신이었다.

제기되었고 오늘날엔 포스트모더니즘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²³⁾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현상은 탈근대성이라는 속성과 함께 해체주의적 특성까지 갖고 있어 자칫 공동체와 상반되는 탈공동체적 이데올로기로 해석되기 쉽다(김동욱, 1992).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이 하나의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사회질서상이란 점에서 보면 또 다른 공동체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공동체론적 함의를 각 차원 별로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근대적 공동체이념의 해체(주의)를 지향한다. 나아가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사회실제적인 측면에서는 가상의 공동체(Cyber Utopianism)를 지향한다. 또한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지역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질서관, 세계적인 힘의 재배치이데올로기로 나타나고 있다.²⁴⁾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은 기존의 공동체에 대한 정당성의 위기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새로운 공동체 이념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도 니체주의자 처럼 초인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희망(계속성)을 추구하고 있다.²⁵⁾ 또한 복음주의와 이상주의의 포기에 대한 대가로 기계주의에 의한 모조신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포스트모더니즘적 공동체론이 지향하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시대정신이 갖고 있는 위협적인 요소이다.

현대문명의 거대한 흐름은 이제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화(Globalization)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으며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세계적인 아노미(Anomie)현상이 계속되고 있다.²⁶⁾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공백을 메워줄 공동체의 모색은 인류의 과제이다. 새로운 공동체론의 모색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여러가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보다 훨씬 인간성을 중시하면서 인간과 대상간의 대화를 강조하고 인간과 사물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친근감을 추구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적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며 획일화된 고정관념을 없애고 있다. 따라서 이제 기존의 공동체이론과 공동체 개념의 확대, 공동체이론의 재해석 등을 통해서 공동체이론의 실제적 구성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이

23) 이상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개인주의와 탈 획일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절대이념의 와해와 더불어 주변적인 것과 중심적인 것의 순환, 소수민족운동, 여권운동, 민권운동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이 모두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각 분야는 물론 여러차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전개되고 있다(김홍석 외, 1993).

24) 이러한 추세는 하부구조의 변혁을 통한 과학기술혁명론과 테크노피아를 지향하고 탈이데올로기화와 지역별 신민족주의로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 무정부주의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원주의적 가치관의 확산과 더불어 해체주의와 심미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의적 공동체를 다시 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강대기, 1996).

25) 사르트르(J.P. Sartre) 가 언명한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는 유명한 명제는 다름 아닌 반 주지주의와 반 이성주의를 의미한다. 서구문명이 그렇게 믿어왔던 이성주의와 절대신의 신봉, 보편주의를 통한 획일화, 전일화의 재단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26)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경향의 일반적인 특징은 세계적인 힘의 균형상실과 이데올로기의 종언 생활양식의 다원화, 종교적인 아노미, 노동윤리의 변화, 공간구조의 축소, 시간-공간의 귀속성 탈피, 과학적 지식의 해체(서구 실증주의의 딜레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사회질서상에 걸맞는 새로운 공동체상의 모색은 미래를 여는 지혜의 출발이며 사회과학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강대기, '정보화사회와 공동체', 사회문화영남학회, 제10집, 1996.
- 김동욱,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 민음사, 1992.
- 김동일, '근대정치사상과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청람, 1982.
- 김성국, '산업공동체의 역사적 의미, 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이론', 한길사, 1987.
- 김홍석, 서상현, '성차별과 가족주의에 관한 이론적 연구', 동명논문지 13-1, 1993.
- 한상복, '한국인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한국현대사회와 문화전통』, 제3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Alexander, Jeffery, *Twenty Lectures* [이윤희역, 현대 사회이론의 흐름, 민영사, 1993].
- Anthony Giddens,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 Action, Structure and Contradiction in Social Analysis* [윤병철, 박병래 옮김 : 사회이론의 주요 쟁점, 민영사, 1991].
-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y of Modernity* [이윤희, 이현희 옮김 : 포스트 모더니티, 민영사, 1991].
- Benton, Ted, *Philosophical Foundation of the three Sociologies* [안상현역,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 풀빛, 1984].
- Bernard Jessie, *The Sociological of Community* (Gleuview, Ill :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73.
- Boudon, *The Crisis in Sociology*, London:Heinemann, 1979.
- F. Tönnies, *Community and Society*, New York, Harper Torchbook, 1957.
- Karl Mannheim, "Ideology and Utopia" [김동일편, 이데올로기, 청람, 1987].
- Rawls, John, *The Theory of Social Justice*, Cambridge, 1973.
- Poplin, Dennis, *Communities :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New York : Macmillan, 1979.
- Robert Nisbet, "Community" [신용하편, 공동체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5].
- Tinder, Glenn, *Community : Peflections on a Tragic Ideal*, Lausiana State Univ, 1980.
- Turner, Jonathan,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김진균외역, 사회학이론의 구조, 한길사, 1983].

